

우리의 시대의 삶

2002 정기우품이





2 보일러보다 훈훈한 마음을 가진...

보일러수리 김 상 운



찾아가는 길

- 위치 : 이천시 창전동 463
- 대중교통
이천터미널에서 도보 2분
- 자가운전
중부고속도로(곤지암IC) ⇨ 3번국도
- 약도



겨울... 겨울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떠올리거나 사랑하는 연인과의 따뜻한 차한잔을 연상시킬 것이다. 크리스마스 와 연말, 새해를 바라보는 풍경...대부분이 아름다운 장면만을 상상하며 겨울을 준비할텐데 이런 겨울나기가 아닌 독특한 겨울나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겨울에 내자신은 돌볼 겨를도 없이 남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게 보내느라 바쁜 김상운(56)씨가 그 주인공이다.

보일러보다 더 훈훈한 사람

“해마다 겨울이 되면 다가올 추위 때문에 주변 어르신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는 말로 입을 여신 김상운씨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일러 전문 수리공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말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쑥스러워 했다. 그의 외모 또한 따뜻한 보일러 만큼이나 인자하게 느껴진다.

보일러와 함께한 인생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에 효성그룹 보일러공으로 입사하여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 부터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마음이 따뜻한 보일러공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 어쩌면 그전에 그의 따뜻한 마음이 그를 보일러공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 1984년에 고려상공(보일러 서비스)을 창업(썬웨이 일등 보일러)해서 현재까지 경영을 하고 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큰 어려움없이 살아 왔지만,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노력과 정열로 많은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기발전을 도모 하고 우수한 기술을 인정받아 이천지역 한국난방시공협회와 한국 온돌시공회 회장을 각 2년간 역임하는 등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1973년부터 지금까지 보일러 수리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김상운씨의 손을 거쳐간 곳은 추위를 모르고 살아왔다. 그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시는게 자신도 가장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말한다. 진정한 따뜻함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기본적인 이치를 몸소 실천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자기 자신만 추스르기에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에 따뜻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 하다.

대를 잇는 보일러식 사랑

이천시 관내 모범노인정, 사음2리 노인정등 11개소를 직접 추천받아 자금을 지원하고 기름보일러 11대를 무료 기증하여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장인의 정신은 이제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진다. 자신이 30년 동안 해왔던 직업을 아들에게 직접 전수시켜 장인정신을 계승시켰다. 그간에 갈고 닦은 우수한 기술과 기능, 장인정신과 노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자식에게 계승하여 현재 동일 업종에서 열심히 종사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보일러로 얻은 이웃사랑과 노인공경을 자식에게 되물림 해주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자신이 느끼는 자식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사랑을 자식에게 그대로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말하며 크게 웃는 김상운씨의 모습을 보니 아직도 이웃사랑이 남아 있어 다가올 겨울이 춥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겨울하면 과거에는 연탄이 떠오르는 시절이 있었다. 연탄이 등장하면서 겨울철 난방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연탄은 계속 갈아줘야 하는 불편함과 유독가스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과 위험적인 요소를 동시에 주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지만 연탄은



한시대를 풍미했던 대명사였던건 사실이다. 물론 아직까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겨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근심인 것이다.

보일러는 연탄이후의 새로운 대명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또 여러가지 보일러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김상운씨의 보일러식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보일러란 이웃과 노인분들에게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담은 분신인 것이다.



인생의 두가지 삶

보일러를 설치했던 곳에 다시 찾아가서 그곳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일러가 튼튼하게 오래동안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비하는 것도 항상 잊지 않고 있다. 설치와 더불어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고장이 나기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가지 삶이 있다. 그의 식대로 표현하자면 몸이 따뜻한 삶과 마음이 따뜻한 삶, 보기에는 몸이 따뜻해야함이 정답인듯하다. 사실 몸이 따뜻해야 그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한 답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김상운씨는 후자의 삶을 택했다. 비록 후자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이란걸 잘 알지만 그와 젊을 시절부터 함께해온 보일러가 그에게 이런 삶을 일깨워준 인생의 스승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보일러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저도 아직 정확한 사용법은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사용법을 아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말은 어릴적 위인전에서 읽었던 선인들의 명언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다.

사람의 마음과 같은 보일러를 계속 어려운 이웃에게 설치해 주고 싶다는 그의 이 소박한 바램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기도 하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이웃사랑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다.